

경기 회복론 '술술'... 광주·전남 1분기 경제동향은?

생산·수출



<호조>

소비·투자



<침체>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분기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전년 동기대비 제조업 생산은 21.7%, 수출은 34.4% 급증했다.

생산의 경우 자동차 및 트레일러(42.5%), 전자부품·통신장비(18.7%)가, 수출은 전자부품(72.9%), 수송기계(41.6%)가 크게 늘어나는 등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가전, 반도체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남은 코크스·석유정제 등의 부진으로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수출은 철강제품은 둔화했으나 석유화학제품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회복 바로미터 백화점 매출 2분기 연속 역신장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건설업체 체감경기도 부진

17.6% 늘었다.

그러나 백화점 매출이 2분기 연속 역신장하면서 소비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면적 3천㎡이상 대형소매점(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광주가 7.7%, 전남이 10.6% 늘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3분기(10.2%)이후 계속 한자리수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매출은 올해 1분기가 -6.4%로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소비 위

축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증가율도 지난해 2분기(39.8%)를 정점으로 3분기 연속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일시적으로 건축착공면적은 34.3% 증가한 반면 건축허가면적(-50.2%)과 건설발주액(-70.2%)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남은 건축착공면적은 -15.2% 줄어든

반면 건설발주액은 73.3% 늘었다. 광주지역 고용사정은 취업자수(1만9천명 증가)가 5분기만에 증가로 반전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1.3~1.4% 포인트 증가하면서 다소 개선됐다.

고용 안정성도 광주의 임금근로자수가 45만5천명으로 2만7천명 늘어났으며 상용근로자수도 24만6천명으로 1만7천명 늘어나는 등 조금 나아졌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공업제품은 안정됐으나 교육비, 통신비 등 서비스가격이 3%이상 올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체감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와 물가지표가 안 좋아 경기를 안 좋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기아차 9,351억 설비투자

내년까지 기아차 광주공장 등 국내 공장 합리화·신 증설 추진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와 내년 신차개발 및 공장합리화 등을 위한 국내공장 시설 및 설비투자에 9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

20일 현대·기아차가 따르면 올해(1·4분기 제외)부터 내년말까지 현대·기아차는 총 9천351억원(현대차 5천355억원, 기아차 3천996억원)을 들여 국내 생산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새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재 쏘나타 1공장 이관, 버스 특수차 공장신설, 랩다엔진 20만대 생산을 위한 공장신설 등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공장 신·증설에 내년말까지 3천333억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5일 선보이는 스타렉스 후속 '그랜드 스타렉스', 오는 7월, 12월 각각 선보일 준중형 해치백 모델 FD와 후륜구동 방식의 럭셔리 세단 BH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액은 774억이다. 동시에 지난 2005년부터 개발중인 배기량 4L, 6L, 9L 급 상용 신엔진과 관련하여 390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나아가 현대차는 에쿠스 후속인 VI와 투스카니 후속인 BK를 개발하는 데도 올해와 내년 총 8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설비투자에 한정된 금액으로, VI 개발에는 올해 75억원, 내년 345억원이, BK 개발에는 올

해 181억원, 내년 25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아차는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공장 신·증설 및 합리화에 투자한다. 기아차는 지난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광주공장, 화성공장 등 각 공장의 합리화작업 및 신·증설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천347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엔진공장 증축비용인 1천170억원이 포함돼 있다. 내년에 증축이 완료되는 이 공장에서는 1천600cc 가솔린 4문자 엔진이 10만대 생산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저소득층 부채 부담 통신·교통비가 주도”

금융연 '소비지출' 보고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통신비와 교통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은 20일 '최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 구조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소득계층의 가계수지 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통신비와 교통비 증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을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가구집·가사용품·의류·신발 소비 비중은 하락한 데 비해 광열·수도·교육·의료 등 비중은 늘어났으며 특히 통신·교통비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1998년을 기점으로 1990~1997년 구간과 1999~2006년 구간을 나눠본 결과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통비 비중은 7.3%에서 12.9%로 5.6%포인트 늘어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18 마케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18 주간을 맞아 지난 18일과 19일 백화점 구매 고객 518명에게 선착순으로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 5·18 마케팅을 펼쳤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여성과학인 산학연 초청 세미나

오늘 센트럴파크호텔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GJISWIST·센터) 박혜순 전남대 약대교수는 21일 오후 3시 광주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산학연 초청 세미나를 갖는다.

1부 행사에서는 (주)무등, (주)동양화학 등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병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 경영지원과장이 '중소기업 구인·구직난 어떻게 풀 것인가?'-중소기업 인력실태 및 대응정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또 2부에서는 광주·전남센터 사업설명회와 Lab(실험실) 매니저 정책제안과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어 임진규 과학기술부 인력조정과 사무관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에 관한 주제발표가 준비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美에 와이브로 기술 유출될 뻔

검찰, IT업체 전·현직 연구원 3명 적발

정부의 IT산업 성장동력 육성책에 따라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통신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IT업체 전·현직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다행히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에 적발됐지만 자칫하면 연간 수백억원씩 쏟아져 나오는 국가안보 기밀을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겨줄 뻔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재영 부장검사)는 20일 국내 IT업체 (주)해당도시가스(이하 해당)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뒤 미국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회사 전직 연구원 정모씨 등 3명과 현직 연구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일부 기술을 전달받은 등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전직 연구원 3명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법공조 등을 통한 국내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회사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빼

한 뒤 미국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회사 전직 연구원 정모씨 등 3명과 현직 연구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일부 기술을 전달받은 등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전직 연구원 3명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법공조 등을 통한 국내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회사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빼

▲와이브로(Wibro-wireless broadband)=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해주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기술.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2004년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 주목을 끌고 있다.

했다. 특히 이들은 고액 연봉과 스톡 옵션 등을 미끼로 포스데타라 핵심 연구원 30여명을 스카우트해 1사에 취직시켜 와이브로 기술을 완성하게 한 뒤 미국 통신업체에 1천800억원에 매각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기술 빼들리지 않았다”

中 치루이자동차 매수설 부인

중국의 대표적 토종 브랜드인 치루이(奇瑞)자동차는 현대기아차 핵심기술 매수설과 관련, “이는 완전 허풍이고 추측에 불과하다”며 강력 부인했다. 치루이자동차 판매담당 부사장 겸 총경리 판공실 주임은 지난 16일 중국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치루이자동차 본공장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생산관리와 독일의 기술관리, 미국의 마케팅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기술을 돈 주고 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지역난방공사-해당도시가스 MOU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지역 혁신도시에 생활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공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8일 광주·나주지역 도시가스업체인 (주)해당도시가스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약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2만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PDF(폐기물 가공원료)와 바이오매스(우드칩) 자원을 활용해 시간당 13메가와트(MW)의 전기와 35기가칼로리(Gcal)의 열을 생산·공급한다. 해당도시가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열병합발전소에 대량으로 가스를 판매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경희기자 choice@

Advertisement for Gallery RODEM furniture store. Features images of various furniture pieces like sofas, chairs, and tables. Text includes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대방출세일' and '특별기획상품으로 고객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dvertisement for AMS English learning system. Features a woman holding a calculator and text promoting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and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Includes testimoni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주)AMS교육.